

# 국어의 원순모음화 현상

오 종 갑

<目 次>	
1. 서 론	2.2. 분철된 경우
2. 원순모음화의 실태	3. 폐음화와 원순모음화
2.1. 연철된 경우	4. 결 론

## 1. 서 론

국어의 원순모음화는 선행하는 양순 자음 ㅁ, ㅂ, ㅍ의 영향으로 그에 후행하는 평순모음 ㅡ가 원순모음 ㅛ로 바뀌는 현상이다.<sup>1)</sup> 이는 일종의 동화 작용으로 직접동화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순모음화는 통시적으로 볼 때, 선행 순자음과 후행 모음 사이에 밀착의 정도가 가장 강한 형태소 내부의 ‘ㅁ, ㅂ, ㅍ’ 등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였고, 그 다음으로 용언의 활용형에서 발달하였으며, 체언의 곡용형에서는 가장 늦게 발달하였다. 이렇게 국어의 원순모음화가 형태소 내부로부터 형태소 경계에까지 확산되는 과정 중에서도 선행 ㅁ, ㅂ, ㅍ과 후행 ㅡ가 분철 표기된 경우는 연철 표기된 경우와는 달리 원순모음화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분철 표기된 경우에는 왜 원순모음화가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대체로 다음의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병근(1970: 385)에서는 19세기 후기 중부방언에서 용언의 활용형과 명사형의 곡용형에서는 원순모음화된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가 수의적인 교체를 보이고 있으나, 분철 표기된 체언의 곡용형에서는 원순모음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함으로써 연철 표기나 분철 표기나가 원순모음화의 발달과 상관이 있으리란 점에 주목하게 하였다. 그리고 최임식(1984: 105)

1) 국어의 원순모음화에는 원순모음에 의한 원순모음화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에서는 19세기 후기 서북방언의 원순모음화를 고찰하면서, 동일한 형태소 경계에서의 원순모음화 현상인데도 용언의 활용형에서는 원순모음화가 실현되고, 체언의 곡용형에서는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체언의 곡용형에서는 분철 표기되었음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19세기 후기 서북방언을 다룬 최명옥(1985: 14~17)에서는 연철 표기된 용언의 활용형과 명사형의 곡용형에서는 원순모음화가 반영되고, 분철 표기된 명사의 곡용형에서는 실제 발음이 원순모음화된 경우일지라도 표기상에는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앞의 두 경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앞의 두 경우는 어간 의식이 체언에서 먼저 발달되어 용언보다는 체언에서 먼저 분철이 이루어지고, 또 실제 발음에서도 체언의 경우는 원순모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데 비해, 뒤의 경우는 표기법 자체가 원순모음화를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견해의 차이를 보인다.

최정승(1986: 230~250)에서는 근대 후기 전라방언에서의 원순모음화를 다루고 있는데, 이 방언의 자료에서도 체언의 곡용형에서 원순모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들은 분철 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들의 실제 발음도 원순모음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최명옥(1985)을 제외한 세 경우에는 체언의 곡용형에서는 주로 분철 표기되었음을 지적하고, 또 실제 발음도 원순모음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 문법 의식의 발달에 의한 분철 표기가 원순모음화의 발달을 제약한 듯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법 의식의 발달이 원순모음화의 발달에 제약 조건이 되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설사 문법 의식의 발달이 제약 조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음운론적 기제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분철 표기된 경우에는 원순모음화가 반영되지 않음이 일반적 경향이긴 하나, 근대 후기 국어의 자료 중에는 ‘남우(他, 춘, 상, 43)’와 같이 분철 표기된 경우에도 원순모음화를 반영시킨 예들이 발견되는데, 이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도 관심거리가 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근대 후기 국어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원순모음화의 실태를 파악하기로 하되, 주로 연철 표기된 경우와 분철 표기된 경우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한 차이를 가져 온 음운론적 기제가 무엇인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 2. 원순모음화의 실태

근대 후기 국어에서의 원순모음화 실태를 살펴 보기로 하되, 연철 표기된 경우와 분철 표기된 경우로 나누어서 다루기로 한다.<sup>2)</sup>

### 2.1. 연철된 경우

(1) ㄱ. 마저시(종, 어서, 2a), 들을(物, 종, 서, 7a), 든득(철, 1, 9b), 물이(水, 종, 상, 3b), 드습(철, 어, 5b), 불너(종, 어서, 4a), 불근(종, 상, 20b), 브즈런이(종, 중, 19a), 불상히(철, 4, 2a), 불밋치(철, 2, 48a), 풀교(종, 서, 7a), 프른(종, 상, 15b), 풀(종, 하, 52a), 흥물며(철, 차, 4b), 겨물면(종, 상, 3a), 드드려(종, 상, 35b), 우물의(종, 상, 25b), 마드니(종, 중, 2b), 허물이(철, 2, 42b), 조크고(종, 하, 44a), 시드고(종, 후, 71b), 더브러(종, 상, 5b), 밋브를(철, 1, 7a), 가브야이(종, 하, 12b), 배프고(종, 어치, 5b), 얼프지(종, 중, 8b), 슬프겨늘(종, 중, 27a).

ㄴ. 무어슬(종, 하, 58b), 물울(水, 종, 상, 3b), 구습(철, 1, 18b), 물예(物, 종, 중, 23a), 두릇(철, 2, 45b), 무습게(철, 4, 41a), 부터니(종, 서, 7a), 부터던(종, 상, 22a), 부억과(종, 중, 26b), 불너(종, 하, 45a), 불근(종, 상, 16a), 부어(注, 종, 하, 3b), 풀(종, 상, 25b), 푸러(종, 하, 67b), 우물(종, 상, 26a), 저문(철, 2, 32a), 머무러(철, 4, 11b), 더부러(종, 상, 8b), 깃부고(철, 1, 31b).

ㄷ. 드른대(<물다, 間, 종, 상, 9b), 드덧노이다(<물다, 埋, 종, 상, 1a), 드근(<묵다, 故, 종, 중, 23b), 드든(<물다, 染, 종, 하, 35b), 드롭쓰오니(<무롭쓰다, 철, 1, 20b), 드으되(<물다, 철, 4, 20b), 붓그리오물(<붓그럽다, 종, 어서, 3a), 브러(<물다, 吹, 종, 중, 33b), 불회틸(<불휘, 종, 하, 57a), 붓(<불, 철, 1, 17a), 뜰어(<물다, 철, 1, 13b), 너므(<너무, 철, 2, 17a), 아므(<아모, 철, 4, 9a).

위의 예는 18세기 50년대의 문헌인 천의소감언해(1756)와 종덕신편언해에 나타난, 형태소 내부에서의 원순모음화 실태를 보인 것이다.

(1-ㄱ)은 아직 원순모음화가 반영되지 않은 예들이고, (1-ㄴ)은 선행 양순자음의 영향에 의해 후행 모음 ㄱ ㄷ로 원순모음화된 예들이다. 이 예

2) 연철과 분철은 체언이나 용언 어간에 국용어나 활용 어미가 연결될 때, 선행 어간말 자음이 후행 어미의 초성으로 이동되어 표기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리키는 술어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앞의 경우는 물론이고, 형태소 내부에서 후행 음절의 초성으로 표기되던 자음이 선행 음절 말음으로 이동되어 표기된 경우까지도 분철이 포함시켰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연철에 포함시켰다.

들에 의하면, 형태소 내부에서는 18세기의 50년대에 원순모음화된 예들의 빈도가 절반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상당한 수준까지 원순모음화가 진척되어 임의적 교체를 보이는데, 비어두 음절의 경우보다는 어두 음절의 경우에서 그 진척이 빠름이 관심을 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비어두 음절의 ㅁ, ㅂ, ㅍ보다는 순음성의 강도가 강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1-ㄷ)은 (1-ㄴ)과는 달리 중세 국어에서 순자음 ㅁ, ㅂ, ㅍ 등에 ㄱ가 연결되었던 예들로서 ㄱ를 그대로 유지한 형태와 비원순모음화하여 ㅡ로 바뀐 예들이 혼란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원순모음화의 세력이 강해지자 이들 어휘에서 ㅡ와 ㄱ가 순자음 아래서 중화되어 가는 과도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1-ㄷ)의 예들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이들 역시 어두 음절에서 비원순모음화를 많이 경험하고, 비어두 음절에서는 그 예가 드물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원순모음화의 정도에 비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원순모음화가 비어두 음절보다 어두 음절에서 더 빨리 진행되었음을 방증해 준다고 하겠다.

- (2) ㄱ. 나쁜(중, 어서, 2b), 니러나물(철, 3, 3a), 죽이물(중, 어서, 3a), 풀문(중, 서, 7a), 외오물(중, 서, 7b), 못흐므로(중, 상, 31a), 울디니(중, 중, 10b), 갑흐물(중, 중, 13a), 니브나(철, 1, 14b), 시브뇨(철, 2, 11a), 아빅개(철, 4, 81b), 지아빅(중, 하, 69b), 늑문(중, 후, 71b).  
 ㄴ. 나문(餘, 중, 하, 52b), 통분홍물(철, 1, 66b), 아뵤(←아비+의, 중, 상, 21a), 구부며(중, 중, 23b), 지아뵤(중, 하, 69b), 시부뇨(철, 4, 21b).

예(2)는 형태소 경계에서의 원순모음화 실례를 보인 것인데, 천의소감언해와 종덕신편언해 전체에서 불과 6개의 예가 원순모음화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18세기 50년대에는 형태소 경계에서의 원순모음화가 발달하기 시작한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18세기의 70년대 자료인 십구사략언해(1772)와 명의록언해(1777)에서는 이러한 원순모음화가 더욱 확산되어 어두 음절에서는 원순모음화된 예들과 그렇지 않은 예들이 수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며, 비어두 음절에서도 원순모음화가 상당히 진척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형태소 경계에서는 아직 소수의 예가 더 첨가될 뿐이다. 그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 (3) ㄱ. 그물(명, 하준, 54b), 시무기를(사, 1, 44a), 스무(명, 하준, 37a), 허물(명, 2, 71a), 제물게야(사, 2, 28a), 여물(사, 2, 115a), 머무르지(명, 수상, 14b), 드

- 무니(명, 하준, 11a), 우물(사, 1, 12b), 밧부러(사, 1, 6a), 밧부게(명, 2, 34b).  
 나. 브리물(사, 1, 28b), 못항물(사, 1, 79a), 슬무니(사, 2, 18b), 쓰이물(사, 2, 61b), 줍덕항문(명, 수상, 23b), 이러무요(명, 수상, 44a), 아니물(명, 하준, 57b).

이러한 경향은 그 후에도 점점 확대되어 19세기 후기의 중부방언 자료인 과화존신(1880)이나 조군령격지(1881)에서는 어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비어두 음절에서도 ‘허물(조, 8b), 머물다(조, 29a), 허물며(조, 34b)’와 같은 몇 개의 단어에서 원순모음화되지 않은 예를 발견할 수 있을 뿐 거의 전부 원순모음화되었다. 더우기 ‘허물, 허물며’와 같은 예에서도 원순모음화된 ‘허물(과, 5b), 허물며(조, 31)’ 등이 공존하므로 이 시기에는 어두 음절에서는 물론이고, 비어두 음절에서도 원순모음화가 완성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형태소 경계에서도 원순모음화가 상당히 진척되어 원순모음화된 예들과 그렇지 않은 예들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sup>3)</sup> 그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 (4) 가. 가르치서문(과, 4a), 급하물(과, 4b), 항읍서물(과, 11a), 잇스물(조, 1a), 늑흔(조, 20a), 압홀(조, 22a), 업스물(조, 37b), 못항물(조, 29a).  
 나. 갈웃치물(과, 4b), 일스무면(과, 20b), 늑푼(조, 6b), 깃부물(조, 14a), 못항물(조, 27a), 널부리라(조, 13b), 도으서물(조, 25a), 감동항서문(조, 28a).

19세기 후기 중부방언의 원순모음화가 위와 같은 데 비해, 동일한 19세기 후기 서북방언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는 Corean Primer(1879)에서는 형태소 내부는 물론이고, 형태소 경계에서도 연철 표기된 경우는 모두 원순모음화가 반영되고 있다.

- (5) 무순(何, Co, 10), 푸이서(燃, Co, 10), 물간(件, Co, 11), 불려(呼, Co, 11), 불(火, Co, 11), 부어(注, Co, 16), 니불(叢, Co, 18), 조분(狹, Co, 19), 서무갓슴예(植, Co, 24), 풀리(草, Co, 24), 가무라(旱, Co, 24), 무섭다(懼, Co, 24), 썰(角, Co, 30), 오문(來, Co, 35), 압푸로(前, Co, 35), 머무름세(留, Co, 37), 절둔(少, Co, 45), 거무면(黑, Co, 70), 아푸다(痛, Co, 72), 이무(旣, Co, 76), 거문(黑, Co, 86).

뿐만 아니라, 근대 후기 전라방언 자료인 열여춘향슈절가에서도 형태소

3) 이병근(1970)에서는 조군령격지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경향을 지적한 바 있다.

## 6 嶺南語文學(第14輯)

경계의 유무에 관세없이 연철 표기된 경우는 모두 원순모음화가 반영되고 있다.

- (6) 깊은(深, 춘, 상, 2), 풀이난구나(解, 춘, 상, 3), 담부(煙草, 춘, 상, 7), 번기불리(鬮, 춘, 상, 8), 압부(前, 춘, 상, 8), 집푼(深, 춘, 상, 13), 나무집(他人家, 춘, 상, 17), 구부(曲, 춘, 상, 27), 너부시샤(寬, 춘, 상, 31), 나물잇가(餘, 춘, 상, 33), 입부다(口, 춘, 상, 40).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연철 표기된 경우의 순음에 의한 원순모음화는 대체로 17세기 초엽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전광현, 1967), 그 확산 과정은 어두 음절, 비어두 음절, 그리고 형태소 경계에서의 순서로 진행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또한 중부방언보다는 서북방언이나 전라방언에서 그 진행이 빨랐음도 알 수 있다.

### 2.2. 분철된 경우

앞의 연철된 경우와는 달리 분철된 경우에는 원순모음화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서는 이러한 분철된 경우의 원순모음화 실패를 살펴 보고, 원순모음화가 잘 반영되지 않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 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예들을 보자.

- (7) ㄱ. 심은단(穡, 종, 어서, 2a), 심으면(種, 어서, 2a), 심으고(種, 상, 4a, 종, 하, 49a), 심은(種, 하, 49a, 종, 하, 58a), 임의(旣, 종, 하, 47a, 종, 후, 71b, 천, 1, 9b, 천, 1, 27b), 즘으늘(沉, 종, 중, 16a), 금음(晦, 천, 2, 49a), 붓의끈(銅線, 천, 2, 67a).
- ㄴ. 밋을을(種, 어서, 2a), 사랑훈은(種, 서, 7a), 삼으니(種, 상, 4b), 밤의(種, 상, 7b), 일훈은(種, 중, 4b), 말미암은디라(천, 천, 1b), 밤을(천, 1, 3b), 효험을(천, 2, 8a), 품으며(천, 2, 19a), 옷뚝으로(천, 2, 32a), 법을(종, 어서, 3a), 집은(종, 어치, 5a), 입은(종, 상, 6b), 집으로(종, 상, 16b), 잠은(종, 상, 21a), 잠으샤(천, 천, 6a), 비답을(천, 1, 24a), 의집을(천, 2, 38a), 디점을(천, 2, 17a), 네법을(천, 2, 13b).
- ㄷ. 뵤을(사, 2, 52b), 주점을(사, 2, 78b), 즐우고(명, 수상, 48a).

(7-ㄱ)은 형태소 내부에서 분철된 경우이고, (7-ㄴ)은 형태소 경계에서 분철된 경우이며, (7-ㄷ)은 18세기 50년대의 자료인 천의소감언해와 종덕신편언해에서는 그 예가 발견되지 않아 18세기 70년대의 자료인 심구사략언해

와 정의록언해의 예를 보인 것이다. 이들 가운데 (7-ㄷ)은 분철된 경우이면서도 형태소 경계의 유무에 관계없이 원순모음화가 반영되고 있다. 그런데 (7)을 다시 보면, (7-ㄱ)과 (7-ㄷ)에서는 ㅁ의 경우만 분철된 예가 발견되고, (7-ㄴ)에서는 어간 말이 ㅁ, ㅂ인 경우는 분철된 예가 다수 발견되거나 ㅍ의 경우는 분철된 예를 발견할 수 없다. 이는 국어 표기에서 분철 표기가 반영되는 과정과 일치하는 점에 흥미가 있다. 즉 국어의 분철 표기의 발달 과정을 보면, 15세기 중부방언에서는 모음을 후행한 형태소 경계에서 유성자음 ㄴ, ㄹ, ㅁ, ㅂ, ㅇ이 먼저 분철되다가 그 뒤 ㄱ, ㄷ, ㅂ, ㅅ의 경우까지 확산되었으며, 완판소설에서는 ㅅ, ㅈ, ㅊ, ㅍ에까지 분철 표기가 확산되어, 이 시기에 이르면 모든 자음이 임의로 분철 표기되고 있다. 물론 ㅅ, ㅈ, ㅊ, ㅍ 등은 7종성자의 범위 내인 ㅅ, ㅆ, ㅈ, ㅍ 등으로 각각 바뀌어 표기된다(오종갑 1985). 이와 같은 분철 표기의 발달 과정에서 볼 때, 유기음은 가장 늦은 시기까지 분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프’의 원순모음화를 논하는 데 귀중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태영(1983: 129)에 의하면, 전주방언에서는 여타의 경우는 원순모음화가 일체 실현되지 않으나 오직 [təpʰul](뉘물), [təpʰunge](뉘으니까)와 같이 /pʰ/로 끝난 용언 어간 다음의 어미 첫 모음 ㅁ만이 원순모음 ㅍ로 실현됨을 보고하고 있다. 또, 최임식(1984: 106)에서는 근대 후기 서북방언의 체언과 조사의 연결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순모음화가 실현되지 않았는데도 ‘압푸로(목, 20: 11)의 경우에는 원순모음화가 실현됨을 보고하고 있다. 이 두 경우 모두 선행 자음이 ㅍ일 때 원순모음화가 실현됨에 주목하고, 그 원인은 다른 순자음이 가지지 않는 [+aspirated] 자질의 작용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그 본질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긴 하나, ㅍ이 다른 순자음에 비해 분철되는 시기가 늦은 점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있다. ㅍ이 다른 순자음보다 분철되는 시기가 늦다는 것은 후행모음 ㅁ와의 밀착의 정도가 강함을 말하는데, 이럴 때는 선행 ㅍ의 영향력이 후행 ㅁ에 강하게 작용하리란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순모음화가 선행 순자음에 의한 직접동화의 일종이라는 사실과 관련시켜 보면, 분철 표기에서 원순모음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은 분철된 선행 순자음과 후행 ㅁ모음 사이에 선행 순자음의 동화력을 차단하는 어떤 요소가 개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암시를 받을 수 있다.

8 嶺南語文學(第14輯)

다음에서는 19세기 후기의 분철된 경우의 원순모음화 실태를 보기로 한다. 먼저 중부방언에서의 그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 (8) 가. 임의(旣, ㅍ, 3b, 5b, 10a, ㅈ, 17b, 20a), 잠으시고(ㅍ, 18a).  
 나. 마음은(ㅍ, 3b), 막음을(ㅍ, 4a), 남의(ㅍ, 5b), 령험을(ㅈ, 2a), 남으리(ㅈ, 13b), 검은(ㅈ, 16b), 몸으로(ㅈ, 7a), 범을(ㅈ, 30a), 짐은(ㅍ, 12a), 짐을(ㅍ, 6b), 밥을(ㅈ, 6a), 임으로(ㅈ, 9b), 임은(被, ㅈ, 16b), 호흡을(ㅈ, 16b).  
 다. 심우고(ㅈ, 32b). cf. 시무기를(ㅈ, 39a), 나무로(ㅈ, 17a)~남우로(ㅈ, 17a).

이 시기에 들어와서도 18세기 후기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다만, 형태소 경계에서의 분철 표기가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분철 표기에 원순모음화가 반영된 (8-ㄷ)의 한 예가 더 추가될 뿐이다.

19세기 후기 서북방언의 실태를 *Corean Primer*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 (9) 가. 담은(damun)(19), 도남으로<sup>4)</sup>(dongnamuro)(51), 섬을(shumul)(63), 얼름을(urumul), 마람을<sup>4)</sup>(baramul)(71), 사람은(saramun)(72), 임은(ipun)(79), 싸음을(saumul)(84), 마음은(maumun)(87), 낱심을<sup>4)</sup>(niangsimul)(89).  
 나. 짐을(jivool)(20), 덩은(diymoon)(33), 사람은(saramoon)(45), 밤은(baboon)(49), 산음은(sanuboon)(64).  
 다. 집우로(jivooro)(33).  
 라. 사람울(saramul)(87).

앞의 (5)에서 본 바와 같이, 서북방언에서는 연철 표기된 경우어는 원순모음화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분철된 경우는 사정을 달리한다. 형태소 내부에서는 분철된 예가 발견되지 않으며, (9-가)은 형태소 경계에서 분철 표기된 예들로, 이 경우에는 한글 표기나 로마자 전사에서 모두 원순모음화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 방언에서도 분철 표기된 예들은 실제 발음 역시 원순모음화되지 않음이 원칙인 듯하다. 이에 비해, (9-나)에서는 한글 표기에서는 원순모음화가 반영되지 않고, 로마자 전사에서는 그것이 반영되어 양자간에는 괴리를 보인다. 이는 (9-ㄷ)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분철된 경우에도 실제로는 원순모음화된 발음이 가능했으나 표기의 보수성 때문에 그것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sup>5)</sup> 따라서, (9-ㄷ)의

4) 이들은 *Corean Primer*에서 한글 표기가 잘못되었다. 각각 ‘동남으로, 마람을, 낱심을’로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  
 5) 양자간의 이러한 괴리 현상은 한편으로는 한글 표기와 로마자 전사가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한글 전사는 ‘집울, 텨운, 사람운, 밥운, 산읍운’ 등으로 표기된 것  
이다. 그런데 (9-ㄷ)에서는 분철 표기인데도 표기의 보수성을 벗어나 한글 표  
기에서는 물론 로마자 전사에서도 원순모음화가 반영되었다. 그러나 (9-ㄷ)  
의 경우는 한글 전사에서는 (9-ㄷ)과 마찬가지로 원순모음화가 반영되었는  
데도 로마자 전사에서는 그것이 반영되지 않아 (9-ㄴ)의 경우와는 반대의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예들을 미루어 볼 때, 19세기 후기 서북방언에서는  
연철된 경우는 원순모음화가 완성되고, 분철된 경우는 실제발음에서 원순모  
음화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여 분철된 경우가 ‘원순모음화의 발달  
이 늦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도, 앞의 (6)에서 본 바와 같이, 연철 표기된 경  
우에는 원순모음화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분철 표기된 경우는 이와는 차이  
를 보인다.

(10) ㄱ. 임의(既, 조웅, 1, 20), 임으(既, 화룡, 95).

ㄴ. 사람울(춘, 상, 1), 씬울(춘, 상, 2), 품으로(춘, 상, 2), 일흠울(춘, 상, 3), 필  
법은(춘, 상, 3), 임으다(춘, 상, 7), 집울(춘, 상, 11), 잠울(춘, 상, 19), 흠울  
(춘, 상, 27), 거름으로(춘, 하, 5), 계집울(춘, 하, 7), 심울(춘, 하, 12), 필법  
으로(춘, 하, 23).

ㄷ. 일우(既, 충열, 상, 16), 업우(母, 별춘, 26).

ㄹ. 남우(他, 춘, 상, 43).

전라방언에서는 (10-ㄷ)과 (10-ㄷ)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철된 경우인데  
도 형태소 내부나 형태소 경계 모두에서 원순모음화가 반영되고 있어 분철  
표기가 원순모음화를 별로 제약하지 않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수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10-ㄱ)과 (10-ㄴ)에서처럼 이 방언 역시 분  
철된 경우에는 원순모음화가 반영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  
들은 완판소설의 표기 성격으로 보아 실제 발음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생  
각된다(최전승 1986).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중부방언, 서북방언, 그리고 전라방언 모  
두가 연철 표기이나 분철 표기이나에 따라 원순모음화의 진척 상황에 크게 차  
이가 있는데, 연철된 경우는 서북방언과 전라방언에서는 이미 원순모음화가  
완성되었고, 중부방언에서도 형태소 내부에서는 이미 원순모음화가 완성되  
었으며, 형태소 경계에서는 임의로 교체됨을 알 수 있다.

그럼, 연철과 분철 간에 나타난 이러한 원순모음화의 차이가 무엇에 연유하는지에 대해서 짚을 바꾸어 설명하기로 한다.

### 3. 폐음화<sup>6)</sup>와 원순모음화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어의 순음에 의한 원순모음화는 선행 순자음이 후행 ㅡ에 직접 영향을 미쳐 후행 ㅡ가 ㅍ로 바뀌는 직접 순행동화이다. 그러므로, 선행 순자음과 후행 ㅡ는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밀착을 깨뜨리는 요인이 그 사이에 존재한다면 선행 순자음의 영향력은 간접적일 수밖에 없고, 이로 말미암아 원순모음화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든지 혹은 그 진행이 더디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연철 표기와 분철 표기에서는 표기 형태 자체에서 선행 순자음과 후행 ㅡ모음의 연결에 밀착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전자에서는 동일 음절 내부에서 서로 밀착된 표기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후자에서는 두 개의 음절로 분리된 표기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연출한 원순모음화의 진행이 크게 차이를 고려했을 때, 분철 표기된 경우는 선행 순자음과 후행모음 ㅡ 사이에 이들의 직접 결합을 차단하는 어떤 요소가 개입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렇다면, 분철 표기된 경우의 선행 순자음과 후행 ㅡ를 차단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일이 아래에서의 과제가 될 것이다.

국어 음운사에서 보면, 국어의 자음들은 어말이나 내부단어경계, 그리고 자음 앞에서 폐음화를 경험해 왔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이기문 1972: 133). 그리고 이러한 폐음화는 점점 확산되어 15세기에는 이미 ㅎ을 필두로 하여 ㅁ, ㄴ, ㄹ, ㅅ와 같은 유성자음들이 모음을 후행시킨 형태소 경계에서 폐음화를 경험하고, 그 뒤를 이어 무성자음인 ㅂ, ㄱ, ㅋ, ㅌ 등과 심지어는 형태소 내부의 자음까지 폐음화를 경험하게 된다.

모음을 후행시킨 자음들의 폐음화는 다음 몇 가지 논거에서 입증될 수 있다(오종갑 1986, 1987 참조).

첫째, 15세기의 국어 표기법에서는 어간말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그것의 두음으로 연철됨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석보상절과 같

6) 여기서는 폐음화를 허파에서 유출되던 기류가 지속되지 못하고 중도에서 차단됨으로써 聲門下壓이 상승되는 현상으로 본다.

은 자료들에서 보면, 어간말 자음이 ㅎ인 경우 분철 표기된 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7세기에 들어오면 이러한 분철은 확립된다(이기문 1963: 132, 전광현 1967: 31). 이것이 만약 문법 의식의 발달에 의한 것이라면 ㅎ에서부터 이러한 문법 의식이 발달하게 된 원인이 밝혀져야 하겠는데, 그러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찾기 어렵다. 더우기 이들이 실제 발음과 관련이 있음은 현대 국어의 발음에서도 입증된다. 현대 국어에서 어간 발음이 ㅎ일 때는 이들은 다음 음절의 모음에 거의 연음되지 않고, 그들 사이에 음절 경계가 놓인다.<sup>7)</sup>

둘째, 근대 후기 국어 표기 자료인 명의록언해 등에서 보면, 동일한 발음을 서로 다른 철자로 표기한 예를 볼 수 있으니, ‘곳을(處, 명, 2, 14a), 곧을(處, 改修捷解, 8, 24)’과 같은 예가 그것이다. 그런데, 연철된 경우의 ㄷ이 사용된 자리에 ㅅ이 교체된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ㅅ=ㄷ의 등식이 성립할 수 있는 위치는 음절말뿐이며, 거기서 두 음은 중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의 중화음이 폐음 [tʰ]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셋째, 기원적으로 양모음 단일형이었던 국어의 활용 및 꼭용어미들이, 역사적으로, 어간말 모음의 음양에 관계없이 음모음화를 경험한다(이기문 1979, 오종갑 1984). 그런데, 18세기 후기의 자료에서 보면, 어간말 자음이 양모음 ㅂ로 시작된 어미에 연철될 때는 어간말 모음의 음양에 관계없이 어미의 첫 모음은 양모음(·)형과 음모음(—)형이 임의로 교체하는 데 비해, 그것이 분철될 때는 어간말 모음의 음양에 관계없이 음모음(—)형만 나타나 음모음화가 완성됨을 볼 수 있다. 분철 표기가 문법 의식의 발달에 의한 것이고, 또 그 보수성 때문에 음운론적 변화형을 잘 수용하지 못한다면, 이 경우에는 중세 국어의 표기에 더 가까운 양모음형과 음모음형 둘 다가 표기에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음모음형만 나타나는 것은 표기법 자체에서가 아닌 다른 곳에 이유가 있음을 말해 준다. 그 이유는 어간말 자음이 모음을 후행시킨 형태소 경계에서 폐음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간말 자음의 울림도(sonority)가 줄어들자 그에 울림도 동화되어 울림도 8°인 후행 모음이 울림도 6°인 ㅂ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네째, 모음을 후행시킨 형태소 경계에서 선행 음절말 자음이 폐음화되었음을 보여 주는 직접적인 증거는 19세기 후기 자료인 완판소설에서 찾을 수

7) 허웅(1985: 225)에서는 어간 발음이 ㅎ일 때는 앞 음절의 중성인지 뒤 음절의 초성인지 구별하기 어려우나, 틀맞추기에 의해 뒤 음절의 초성으로 해석한다고 한다.

있다. 완관소설에는 ‘입은(葉, 춘, 상, 6), 압울(前, 춘, 상, 20)’ 등과 같은 예들이 발견되는데, 이들은 표이 모음을 후행시킨 형태소 경계에서 폐음화되었음을 그대로 보여 준다. 그리고 이러한 폐음화는 현대 국어 방언에서도 발견되는데, 최태영(1983: 38)에서는 전주지역어에서 ‘부엌은, 짚이, ……」 등이 각각 ‘[puəŋin], [čibi], ……」 등으로 발음됨을 보고하였으며, 이병근(1975: 33)에서는 중부방언에서도 ‘무릎이, 부엌이, ……」 등이 각각 ‘[무릎이], [부엌이], ……」 등으로 발음됨을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제시된 몇 가지 논거에 의거할 때, 모음을 후행시킨 형태소 경계에서 선행 음절말 자음이 폐음화되는 규칙이 발달했음이 국어 음운사에서 확실시된다. 따라서, 앞에서 이미 제시된 자료들 중 분철된 예들은 모두 모음 앞에서 선행 음절말 자음들이 폐음화되었음을 표기에 반영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들 각각의 예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형태소 내부에서 분철된 (8-ㄱ), (9-ㄱ), (10-ㄱ)의 ‘심으-, 즘으-, 임의’ 등은 중세 국어에서 각각 ‘시므-(석보, 19, 33), 즘으-(월인, 8, 101), 이의(소학언해, 4, 5)’ 등으로 나타나던 것으로, 이들은 모음을 후행시킨 형태소 내부의 자음에까지 침투된 폐음화 규칙의 적용으로 후행 음절의 ㄱ이 선행 음절말 자음으로 표기된 것이다. 이 때 선행 음절말 자음 다음에 음절 경계가 주어질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그로 말미암아 후행 음절의 ㅡ에 선행 순자음의 동화력이 차단된다.

	/simʰ-, čama-, imʰy/
폐 음 화	simʰi- čamʰa- imʰiy
음 모 음 화	_____ čamʰi- _____
원순모음화	_____ _____ _____
	[simʰi-] [čamʰi-] [imʰiy]

형태소 경계에서 분철된 (8-ㄴ), (9-ㄴ), (10-ㄴ), (11-ㄴ)의 예들 역시 모음을 후행시킨 형태소 경계에서 어간말 순자음이 폐음화되어, 이들 순자음의 동화력이 후행 모음 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원순모음화가 제약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에는 폐음화 규칙이 원순모음화 규칙이나 연음 규칙보다 먼저 적용된다.

	/irhom + in,	sam + irio/	
폐 음 화	ilhom <sup>1</sup> + in	sam <sup>1</sup> + irio	
원순모음화	_____	_____	
연 음	_____	_____	
	[ilhom <sup>1</sup> in]	[sam <sup>1</sup> irio]	

(7), (8), (9), (10)의 어느 것에도 ‘요’형과 같은 분철의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표과 관련된 표기 형태를 역사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11) ㄱ. 노푼(사, 1, 76b), 노프냐(사, 1, 32a), 가프려(사, 1, 72a), 기프샤(용, 9), 디플(朴초, 상, 22), 디플(類合, 上, 2), 알프로(小언, 6, 61).
- ㄴ. 뉘푼(종, 후, 71b), 김푼(명, 하존, 53a), 갑플(사, 2, 49b), 앓피(사, 2, 115a), 김프니(명, 2, 45a), 님플(瘡瘡, 下, 244), 무릅플(家禮, 7, 8).
- ㄷ. 뉘흔(종, 상, 17a), 김흔(천, 발, 2b), 집흔(藥, 종, 하, 43b), 콩넙흐르(사, 1, 37b), 압흔(천, 전, 7a), 갑흐물(종, 상, 12b), 십흔(종, 중, 18b), 집흔(종, 하, 43b), 덩흐틀(종, 하, 58b), 콩넙흐로(사, 1, 37b), 님흔(사, 2, 1b), 무릅흐로(사, 2, 114b).
- ㄹ. 임은(葉, 춘, 상, 6), 압을(前, 춘, 상, 20), 연임은(춘, 상, 20).

(11-ㄱ)과 같은 표기 방식은 16세기경까지 주류를 이룬 것인데, 어간탈표이 파열음의 3 단계 조음과정인 폐쇄, 지속, 개방의 모든 단계를 갖춘 음으로서 후행의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의 초성에 연음된 것을 연철로 표기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표과 一가 동일 음절 내부에서 직결되므로 선행 표의 순음성이 후행 一에 바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후대에 내려오면서 예(5), (6)에서 본 바와 같이 전부 원순모음화를 경험하게 된다.

(11-ㄴ)은 17세기 이후부터 근대 국어 시기에 일관되어 사용되던 표기 방식인데, 파열음의 3 단계 조음과정 중 첫 단계인 폐쇄의 단계를 선행 음절의 말음으로, 둘째 단계인 지속 단계를 음절 경계로, 셋째 단계인 개방의 단계를 후속 음절의 두음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표기에 반영시킨 것이다. 이 경우는 표기 방식과 실제 발음은 (11-ㄱ)의 그것과 차이가 있으나 표에 一가 직결되므로 표의 순음성이 그대로 후행 一에 영향을 미쳐 후대에 오면 (11-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순모음화가 완성되었다.

(11-ㄷ)은 18세기 후반부터 흔히 발견되는 표기 방식인데, 이 경우에는 원순모음화가 반영되지 않음에 대해 최전승(1986)에서 이미 주목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이것은 국어에서 일반적으로 ‘ㅂ+ㅎ→ㅍ’으로 격음화(축약)되는 현상과는 반대로 ㅍ을 ㅂ과 ㅎ으로 분리시킨 음운분활에 해당하며, 이 때의 분리된 ㅂ은 후행 자음 ㅎ 앞에서 폐음화된다(오종갑 1986). 그 결과 ㅍ에 선행하는 자음은 ㅍ이나 ㅂ 아닌 ㅎ이 되므로 원순모음화는 불가능하게 된다.

	/nop <sup>h</sup> +in/	/nop <sup>h</sup> +in/
음운분활(I, II)	nopp <sup>h</sup> +in	nop <sup>h</sup> +in
폐 음 화	nop <sup>1</sup> p <sup>h</sup> +in	nop <sup>1</sup> h+in
원순모음화	nop <sup>1</sup> p <sup>h</sup> +un	—————
연 음	nop <sup>1</sup> p <sup>h</sup> un	nop <sup>1</sup> hin
	[nop <sup>1</sup> p <sup>h</sup> un]	[nop <sup>1</sup> hin]

(11-ㄷ)은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어간 말 자음 ㅍ이 모음을 후행시킨 형태소 경계에서 [p<sup>1</sup>]으로 폐음화됨으로써 ㅍ의 순음성이 차원되어 후행 ㅍ가 원순모음화되지 않는다.

	/ip <sup>h</sup> +in/
폐 음 화	ip <sup>1</sup> +in
원순모음화	—————
연 음	—————
	[ip <sup>1</sup> in/

다음에서는 분철에서 원순모음화가 반영된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한다.

(7-ㄷ), (8-ㄷ), (9-ㄷ), (10-ㄷ, ㄷ) 등은 분철인데도 형태소 내부나 형태소 경계에 관계없이 원순모음화가 반영되었다. 분철된 경우에는 선행 순음성의 차단으로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음이 원칙이므로 이들 예는 예외적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외가 나타나게 된 원인 역시 폐음화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원순모음화 규칙과 폐음화 규칙은 후자의 발생이 약간 앞선 듯하나 근대 국어에서는 두 규칙이 경쟁하고 있으므로 폐음화가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원순모음화가 적용되면 원순모음화가 반영되지 않는 분철이 되고, 그것과 반대의 순서로 적용되면 원순모음화가 반영된다. 이는 규칙 적용 순서의 차이로 해석된다.

	/simi—/	/čip+ir/
폐 음 화	sim <sup>1</sup> i—	čip <sup>1</sup> +ir

원순모음화	_____	_____
	[sim <sup>1</sup> i—]	[čip <sup>1</sup> ɪ]
	/simi—/	/čip+ir/
원순모음화	simu—	čip+ur
폐 음 화	sim <sup>1</sup> u—	čip <sup>1</sup> +ul
	[sim <sup>1</sup> u—]	[čip <sup>1</sup> ul]

한자어는 그것을 구성하는 각 한자가 하나의 형태소로 기능하기 때문에 이들의 원순모음화의 발달은 형태소 경계에서의 그것과 다를 수 있다.

- (12) 임의로(任意, 중, 중, 16b), 감음더(感泣, 천, 차, 3a), 혐의(嫌疑, 천, 1, 5a), 탐음혹고(貪淫, 천, 2, 28b), 참의논(參議, 천, 2, 48a).

이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세기 후기 국어에서는 원순모음화가 될 수 있는 음성 환경을 갖춘 한자어에서 원순모음화된 예를 발견할 수 없으며, 19세기 후기 중부방언에서도 그러한 예를 발견할 수 없다. 그것은 고유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태소 경계에서 폐음화 규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는 한자어에서도 원순모음화된 예를 발견할 수 있다.

- (13) ㄱ. 이무로(任意, 삼국지, 4, 37), 혐무(嫌疑, 초한, 상, 14).  
 ㄴ. 혈우(丙午, 춘 18).

(13-ㄱ)에서 ‘이무’는 한자어 ‘임의’가 ㄷ삭제 규칙의 적용으로 ‘임으’가 된 다음, 다시 원순모음화 규칙과 연음규칙의 적용에 의해 발달된 형태이고, ‘혈무’는 ‘혐의’가 ㄷ삭제와 원순모음화로 ‘혈우’가 된 다음 다시 폐음화 규칙과 동자음 첨가 규칙의 적용으로 발달된 형태이다. 그리고 (13-ㄴ)의 ‘혈우’는 ‘혈무’의 발달 과정과 동일하나 동자음 첨가 규칙이 임의적 규칙이기 때문에 그것의 적용이 면제된 형태이다.

	/im+i/,	/hyəm+i/,	/im+i/
ㄷ삭제	im+i	hyəm+i	_____
폐음화	_____	_____	im <sup>1</sup> +iy
원순화	im+u	hyəm+u	_____
연 음	imu	hyəmu	_____
	[imu]	[hyəmu]	[im <sup>1</sup> iy]

	/hyəm+iy/,	/hyəm+iy/
ㅁ 삭 제	hyəm+ɨ	hyəm+ɨ
원 순 화	hyəm+u	hyəm+u
폐 음 화	hyəm <sup>1</sup> +u	hyəm <sup>1</sup> +u
동자음첨가	—————	hyəm <sup>1</sup> +mu
	[hyəm <sup>1</sup> u]	[hyəm <sup>1</sup> mu]

## 4. 결 론

지금까지 살펴 본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① 국어의 순자음에 의한 원순모음화는 대체로 17세기 초엽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어두 음절, 비어두 음절, 그리고 형태소 경계에서의 순서로 확산되어 갔으며, 중부방언보다 서북방언과 전라방언에서 그 진행이 빨랐다.

② 국어 원순모음화의 확산 과정에서 볼 때, 분철 표기된 경우에는 원순모음화가 잘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모음을 후행시킨 형태소 경계에서 자음들이 폐음화되자 순자음 역시 폐음화되어, 그 뒤에 음절 경계가 놓이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순자음의 동화력이 후행 —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③ 분철된 경우에도 원순모음화가 반영된 예들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원순모음화 규칙이 먼저 적용된 다음, 다시 폐음화 규칙이 적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 참 고 문 헌

- 오종갑(1984), “모음조화의 제검토”, 『목천 유창균 박사 환갑기념 논문집』.  
 \_\_\_\_\_(1985), “이중표기와 마찰음화”, 『백민 전재호박사 화갑기념 국어학논총』.  
 \_\_\_\_\_(1986a), “이중표기와 그 음가”, 『어문학』 47.  
 \_\_\_\_\_(1986b), “폐음화와 그에 따른 음운 현상”, 『영남어문학』 13.  
 이기문(1963), 『국어 표기법의 역사적 연구』, 한국연구원.  
 \_\_\_\_\_(1972), 『국어음운사 연구』, 한국문화연구소.  
 \_\_\_\_\_(1979), “중세국어 모음론의 현상과 과제”, 『동양학』 9.  
 이병근(1970), “19세기 후기 국어의 모음체계”, 『학술원 논문집』 9.  
 전광현(1967), “17세기 국어의 연구”, 『국어연구』 19.

- 최명옥(1985), “19세기 후기 서북방언의 음운론”, 『인문연구』(영남대) 7-4.  
 최입식(1984), “19세기 후기 서북방언의 모음체계”, 계명대 대학원.  
 최전승(1986),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한신문화사.  
 최태영(1983), 『방언음운론』, 형설출판사.  
 허 응(1985), 『국어음운학』, 샘문화사.